





좌담회

씨클 활동의 문제점과 해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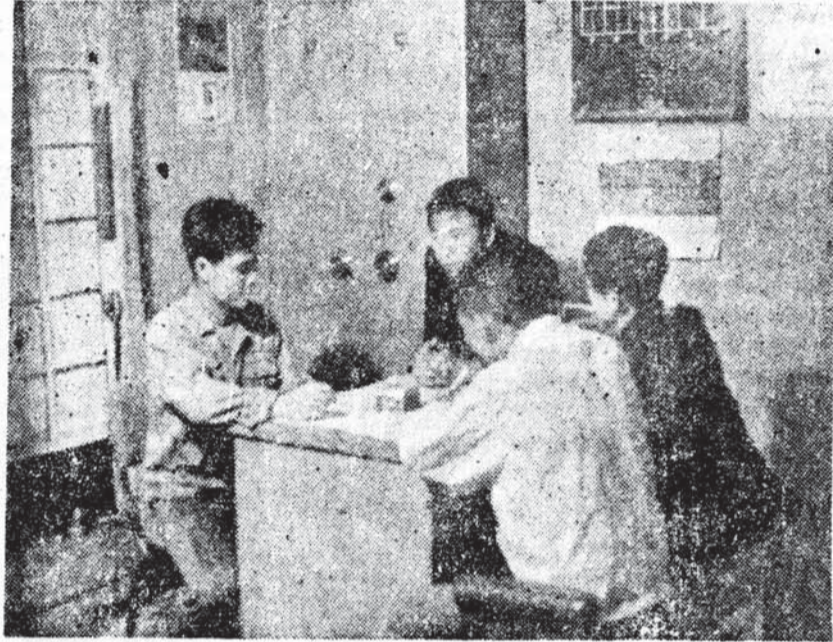
사회: 김철수 기자
장소: 편집실
시간: 1970. 9. 25 오후 1시
기록: 전기자

참석자: 강창효(불교학생회), 강택림(아카데미), 김광원(Canoe), 김광수(신세대), 김희주(Seal), 남석조(제대Y), 양지영(세라비), 장문진(카톨릭학생회), 홍(제주도문제연구), 권(세라비), 권(Pharos) <가나다순>

사회: 오늘 좌담회에 각 클...
이런 일을 없애기위해...
사회: 지금까지 추상적인...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나대에서는 입학식에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새싹운동에 대한 좌담회 모습

기자서

가을은 이미 문득을...
가을은 이미 문득을...
가을은 이미 문득을...
가을은 이미 문득을...
가을은 이미 문득을...
가을은 이미 문득을...
가을은 이미 문득을...
가을은 이미 문득을...

달 "현대사" 대의원 회의...
달 "현대사" 대의원 회의...
달 "현대사" 대의원 회의...
달 "현대사" 대의원 회의...
달 "현대사" 대의원 회의...
달 "현대사" 대의원 회의...
달 "현대사" 대의원 회의...
달 "현대사" 대의원 회의...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총학생회를 믿으며

총학생회장 김수진
학행 여러분! 대의원...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총학생회장 김수진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사회: 새싹운동에 대한...

지도교수의 소극적 참여와 무관심 대학씨클 연합회도 필요

개성,특성이 무시된 맹목적인 가입
사회: 많은 이야기들이...
지도교수의 소극적 참여와 무관심 대학씨클 연합회도 필요
개성,특성이 무시된 맹목적인 가입
사회: 많은 이야기들이...
지도교수의 소극적 참여와 무관심 대학씨클 연합회도 필요
개성,특성이 무시된 맹목적인 가입
사회: 많은 이야기들이...

서문사진관
단체촬영, 개인촬영, 서문사진관으로
카메라도 임대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청 서측
등화가친의 독서의 계절!
\*오랜전통 \*풍부한 서적
독서의 전당 문화서점으로
특히 제대생에게는 특별봉사
중앙로 문화서점
연락처 전화 2086번

# 시원

## 빛속에서서

모두들  
것고 있구나.

나보다  
부피가 작은 것들은  
모두가 울고 있구나

성스럽게  
산다는건  
축축이 물베인 등어릴  
등어릴 기대고  
것은 눈으로 얘기 하는것

세상은  
성스레 것고 있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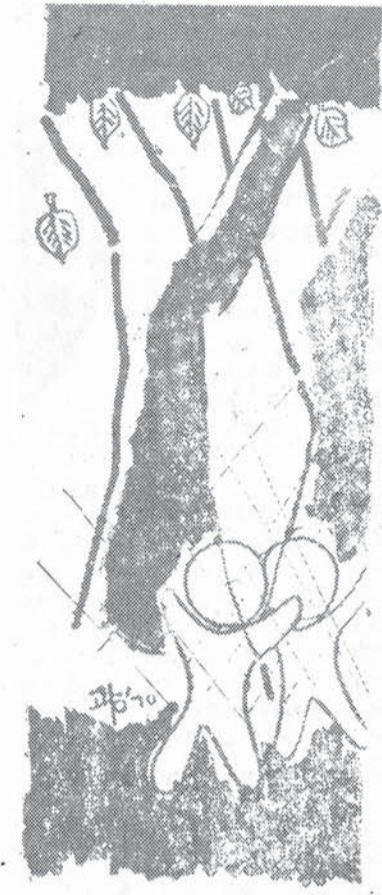
나보다  
손가락이 가느런 나무들은  
피나게 입을을 깨물고  
손 흔들고 있구나

진실하게  
사는 방법은 무엇인가  
가까이서  
속삭이는 달스런 기도  
거짓 하나 모르는  
은밀한 아이들의 눈웃음

실상 나보다 부피가 작은  
사람이 있을까

참말  
나보다 손가락이 가느런  
나무도 있구나 할까

비속에서  
모두들 것고 있구나.



김 덕 남 <국문과 2>

# 떠나면서

## 국 4 김 창 진

부피 내가 이런 이의의도 무참하게 과절당할 때  
공을 써야 되는 것을 보  
니 참 세월이 빠른을 제  
삼 느꼈다. 일년전 내가 위  
임했을 때 무엇인가 새로  
운 일을 하고 싶었고 노  
력도 많이 했지만 이루어  
놓은 일 없이 무기력하게  
쓰고 싶지 않은 이의의글  
을 써야한다는게 조금은  
성심을 느꼈다. 기자 한사  
람도 없이 교정까지 바가  
며 인쇄소에서 망년을 보  
내던 일도 이제는 아름다  
운 추억의 하나 밖에 안  
되고 후반기에는 꼭 짜게  
기일에 나왔든 신문이 울  
해 들어 놔고지며 여타의  
형들에게 입시의 대상이된  
일은 내 스스로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나 역시  
적주간을 만들어 제대신보  
사상 하나의  
발견의 계기  
를 이루어 놓  
겠다는 신념

제대신보 사  
에 애호가수  
등기자도 입  
사한지 채 일  
년도 못되 내가 이렇게  
장한 제대신보사의 중핵의  
입구를 필름을 쓰는 것이  
어찌지 부끄럽고 얼얼이달  
아 오르는 것 같다. 일개  
신보사의 편집국장이란 자  
리가 곧 그대로 위임이있  
고 권위만 있는 것이라면  
누군가 내가 하겠다고 못  
말리가 없었지만 신문 1호  
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편  
집국장의 직책은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망설여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왕 내 스스로가 이만큼  
을 쓰게 됨으로써 제주대  
학 발전의 한 계기가 된  
다면 앞으로 일년건 내향  
것 모든 역할을 겸사시키  
고 싶다. 지금 신보사에는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  
다. 편집국장의 발전, 기자  
들의 박한 대우, 원고료의  
미지급 내지 소액 지급,  
농수산학부의 교량적인 기  
자의 대우 개선 내지 취  
재 확보등 실로 무척은 편  
집국장이 안되기 위해서는

이.취임의 변  
제대로 내  
가 여러학생  
들에게 부탁하고  
싶다. 제대신  
보사는 바로 여러분의 신  
보사다. 즉 어느 일개  
의 신문이 아니라 우리  
제주 대학생 전부의 신  
문이다. 이러한 제대  
신보사가 발전할려면  
적 여러분의 도움이 없  
는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  
다. 15년여의 배에 인되는  
운영비로 인쇄비, 원고료,  
기자수당, 소모품비등 지출  
하하면 상당한 정신적 피  
로가거기게 될을 여러 학  
생은 이해하여 신보사의 발  
전에 많은 협력을 바란다.

제대로 내  
가 여러학생  
들에게 부탁하고  
싶다. 제대신  
보사는 바로 여러분의 신  
보사다. 즉 어느 일개  
의 신문이 아니라 우리  
제주 대학생 전부의 신  
문이다. 이러한 제대  
신보사가 발전할려면  
적 여러분의 도움이 없  
는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  
다. 15년여의 배에 인되는  
운영비로 인쇄비, 원고료,  
기자수당, 소모품비등 지출  
하하면 상당한 정신적 피  
로가거기게 될을 여러 학  
생은 이해하여 신보사의 발  
전에 많은 협력을 바란다.

지 않는 대학생들이 있는가? 우리는 그크마한것  
세 다루쳐 달아야 한다.  
대학이 발전해야 여러 대  
학제도 발전이 되는 것이  
고, 여러 대학생이 발전  
함으로써 대학이 발전하  
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대  
학신보이 발전함으로써 상  
호유기적 관계를 맺어 다  
발전하는 정일은 여러 학  
생은, 제대신보 대학의 신  
문을 만드는데 협조를 아  
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 제대신보도 지령94  
호로 100호를 내기에도 일  
마 남지가 않았다. 내 입  
기도 94호로서 끝이며 앞  
으로 100호는 신임 편집국  
장이 만들 것이다. 나는  
편집국장이란 위치가 그렇  
게 화려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신임 국장의 앞길  
을 축하하기 이전에 온갖  
을 다해 유혈과 꾸준한 드  
드래도 이겨나가는 인고의  
정신을 기르라 하고 싶다.  
한걸 쫓아오는 신문사의  
예선에 좀더 좋은 신문이  
나오기를 고  
대하며 떠나  
는 저의 변을  
마치고 싶다.

세월로 내  
가 여러학생  
들에게 부탁하고  
싶다. 제대신  
보사는 바로 여러분의 신  
보사다. 즉 어느 일개  
의 신문이 아니라 우리  
제주 대학생 전부의 신  
문이다. 이러한 제대  
신보사가 발전할려면  
적 여러분의 도움이 없  
는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  
다. 15년여의 배에 인되는  
운영비로 인쇄비, 원고료,  
기자수당, 소모품비등 지출  
하하면 상당한 정신적 피  
로가거기게 될을 여러 학  
생은 이해하여 신보사의 발  
전에 많은 협력을 바란다.



애승이가 한마디 <국문과 3> 김 한 준

# 저클랑랑

1969년 11월31일 제주  
대학 어학실습실에서  
조용하고 심좌한 분위기  
속에서 9명과 교대6명의 발  
기회원들이 장립총회물  
임으로써 Pharos는 탄생  
되었다.

제주대학 남학생과 교  
육대학 여학생으로서 타  
지역에 비해 독특한 구  
성을 특징으로 두 대학  
을 연결, 교류하며 회원  
간의 친화와 개인에이  
적응성에 힘을 기울이고  
기려 부를  
이용하고 있  
는  
젊은 자를  
키움에 주  
안점을 두고  
내일의 도  
전을 약속하  
면서, 발기의원 전부가 1  
기념 용연제는 용연행  
사의 일환으로 어느 세  
월에도 하지 못했던 제  
각각 의상전을 본교  
대강당에서 대담하게 열  
어 각광을 받았다. 역시  
용연행사의 일환으로 전  
교생을 대상으로한 「노  
래자랑」을 하여 학생들  
의 열면참여와 전교생이  
운집한 대강당은 이른바  
홍분의 도가니였다. 대  
형제 모든 활동에 매  
공한 Pharos는 일약 기  
상세를 보여주고 있다. 전  
교생이 열면 참여로  
고되고 남달지 않은  
은 세력이 과거에 비해  
로가 이른바 현안이 되  
어 활동을 위지않다. 그  
해도 저물어 12월 31일

에는 송년 지축Party를  
갖이며, 며칠안된 아가들  
이 성인이 된 느낌이라는  
기쁨이 감동정도로상  
장한 모습을 보였고 1970  
년도로 넘어와 성립위원  
15명중 남아 30명의 가  
족이 되면서 세대의 변  
모를 보였다. 이때부터  
Pharos는 활기를 갖고다  
양한 활동을 하게 되었  
으니 자립정상을 위한  
교육적이라든가 음악감상회  
를 여러번 가져 내적  
성능을 기하는 한편 Canoe  
모임과 친선 축구대결을  
가져 외적정상을 시도하  
기도 했다.

# Pharos

5월 27일 제대 17주년  
기념 용연제는 용연행  
사의 일환으로 어느 세  
월에도 하지 못했던 제  
각각 의상전을 본교  
대강당에서 대담하게 열  
어 각광을 받았다. 역시  
용연행사의 일환으로 전  
교생을 대상으로한 「노  
래자랑」을 하여 학생들  
의 열면참여와 전교생이  
운집한 대강당은 이른바  
홍분의 도가니였다. 대  
형제 모든 활동에 매  
공한 Pharos는 일약 기  
상세를 보여주고 있다. 전  
교생이 열면 참여로  
고되고 남달지 않은  
은 세력이 과거에 비해  
로가 이른바 현안이 되  
어 활동을 위지않다. 그  
해도 저물어 12월 31일



# 바닷가의 여인

글: 양 석 현 경영 · 1  
그림: 김 광 수 국문 · 1

여인이 잔게 늘어뜨릴 머  
리채가 바닷바람에 나무커  
며 여인은 바다를 바라볼  
뿐이다.

어제의 잔색 코트를 거  
의 무릎까지 오르는 긴 구  
두를 신고, 그리고 번그라  
스신지 안경을 끼고, 손에  
는한권의 책을 쥐고 있었  
다.

<...음, 무슨 목적이 있  
는 여인이다. 이렇게 여름  
도 아닌 늦가을에 혼자마  
릿가를 찾아오다니, 그것도  
어제와 오늘아니, 내가 여  
행중에 배일 찾아왔는지도  
몰라...>

상민은 여인에게서 시선  
을 빼지 않았다.

여인은 안경을 쓴을 울  
려거나, 머리채를 매만지거  
나. 어제와 같이 바다를바  
라볼 뿐, 움직일줄을 몰  
랐다.

<할참후에 여인이 뒤돌아  
상민을 바라본다.

다섯 해안을 따라 천천히  
걸기 시작했다. 바람에 머  
리채가 나무커며, 단추를며  
기가 우스웠던 것이다.

그러나 앞서 가는 여자  
는 소리들 썰며 버티지 못  
한 소녀였다.

상민은 빨리 건다 감자  
기 천천히 걸으면 지나는  
리를 싸고 있어 상민은  
신이 우습게 여겨졌다. 한  
여인에게 완전히 몰입된 자  
기가 우스웠던 것이다.

그러나 앞서 가는 여자  
는 소리들 썰며 버티지 못  
한 소녀였다.

상민은 빨리 건다 감자  
기 천천히 걸으면 지나는  
리를 싸고 있어 상민은  
신이 우습게 여겨졌다. 한  
여인에게 완전히 몰입된 자  
기가 우스웠던 것이다.

그러나 앞서 가는 여자  
는 소리들 썰며 버티지 못  
한 소녀였다.

상민은 빨리 건다 감자  
기 천천히 걸으면 지나는  
리를 싸고 있어 상민은  
신이 우습게 여겨졌다. 한  
여인에게 완전히 몰입된 자  
기가 우스웠던 것이다.



물 쳐다보는게 편부었다.

「상민아! 왜 그렇게 멍  
청히 앉아 있지? 저에  
누구와 약속이 있는 모양  
이구나! 시계만 울려봐,  
울려봐!」

하고 아버지가 물었다.

「네, 친구와 저녁에 약  
속이 있어서...」

<상민은 거짓말을 하지않  
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상  
민이 어쩌면 고개를 쳐들  
어 시계를 보려는 것을  
눈으로 힐끔힐끔 살피고  
있기 때문이다.

시계가 울려봐! 요란한  
4시를 알리는 것 같았다.  
상민이 시계를 울려봐!는  
했는가 점점 잦아졌다.

한 시간이 왜 그렇게도  
오랜지...」

5시가 거의 됐을 무렵,  
상민은 벌벌 일어나 아버  
지에게 인사도 하는 제마  
는 제하고 문을 나섰다.  
그리고 지나는 택시를 잡  
았다.

차원에서 그는 운전수에  
게 빨리 달려줄 것을 단  
단히 말했다.

상민은 그 여인이 다시  
바닷가에 걸머진 바람처럼  
시선을 향해갔을 때, 상민  
의 손이 일렁거렸다.

상민은 실의에 심정으로  
장가에 기대어 여인이 서  
있던 곳을 내려다 보았다.  
여인이. 이제는 오지 않  
으려나? 하는 애석한 생  
각이 들었다.

머리채를 휘날리던 여인  
의 모습이 원히 떠올랐다.  
한참 후에 해안을 더듬  
던 상민의 시선이 멀리  
서 천천히 이곳으로

## 방송요원

다음과 같이 방송요원을 공고한다

편성부장: 홍	주 (가·3)
취재부장: 고	성 기 (국·3)
상호부원: 문	성 숙 (국·2)
부	덕 동 (경·2)
한	혜 환 (국·1)
계	봉 숙 (가·1)
장	경 숙 (가·1)
농 학 부	
방송부장: 나	종 열 (국·3)
수상학부	
방송부장: 고	우 철 (중·3)

1970. 9. 30

방송실장 김 경 국

## 본사사령

편집	이	태	익 (국·3)	원
고	고	순	희 (가·2)	"
정	정	복	희 (가·2)	"
김	김	천	수 (영·1)	"
김	김	광	수 (경·2)	"
김	김	광	수 (국·1)	"
수송	강	민	수 (국·2)	"
김	김	필	수 (제·2)	"
김	김	배	진 (경·1)	"
김	김	영	호 (영·1)	"
김	김	정	숙 (영·1)	"
양	남	순	순 (가·1)	"
홍	홍	희	희 (가·1)	"

1970년 9월 30일자

제대신보사

## 등화가친의 제절!

전문서적, 일반서적, 학습서적, 잡지, 문학전집

서적계의 왕자대신서점으로

※특히 여러분에게 정가에서 3분지1 특별할인봉사

# 대신서점

제주은행앞

연락처 TEL 3041